

신세계, 재무통·영업통 CEO 교체… 식품 수익성 개선 속도

푸드·L&B, 수익성 개선 집중
신세계푸드, 내실 다지기 위한 개편
신세계L&B, 와인 중심 포트폴리오

신세계그룹이 식품 계열사 신세계푸드와 신세계L&B의 수장을 교체하면서 수익성 제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30일 정기인사를 통해 강승협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을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로, 마기환 나라셀라 영업마케팅총괄 전무이사를 신세계L&B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수익성 제고 과제가 있는 두 곳의 리더를 교체해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신세계푸드의 부진을 떨쳐낼 구원투수는 강승협 신임대표다. 강 신임대표는 1995년 신세계에 입사해 2015년 신세계그룹 전략실 감사팀장, 2016년 신세계건설 지원 담당 상무보, 2018년 이마트 관리담당 상무, 2019년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를 거쳤다. 2020년에는 이마트 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 상무, 2022년 전무로 승진해 이마트 지원본부장과 지마켓 지원본부장을 겸직했다. 지난해에는 스타필드 개발·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지원본부장과 재무담당을 겸임했다.

강 신임대표는 수익과 성과 위주의 운영으로 내실을 다질 것으로 점쳐진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한 97억원을 달성했다. 2018년 이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계열사인 이마트에 가점간편식(HMR) 상품과 스타벅스로 베이커리를 납품하는 물량이 상당수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질수록 성장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 다각화가 절실하다.

신세계푸드는 노브랜드버거와 노브랜드 피자, 오슬로, 베키아에누보, 데블스도어 등의 외식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외식브랜드도 수익성 위주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지난 1월 레스토랑 '보노보노'를 브라운F&B에 매각했으며 지난 9월 그룹 내 '미운 오리'로 꼽히던 음료 브랜드 '스무디킹'의 국내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 스무디킹은 2003년 국내 론칭 이후 한번도 흑자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신임대표는 비효율 브랜드를 정리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



마기환 신세계L&B 대표이사

로 보인다.

대안육 사업에 대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신세계푸드는 일찌감치 대안육을 차세대 먹거리로 지정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다. 앞서 2021년 대안육 브랜드 '베러미트'를 론칭했으며 지난해에는 식물성 대안육 브랜드 '유아왓유잇'을 선보였다.

하지만, 국내 대안육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탓에 성장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대안육 사업의 낮은 수익성이 문제로 지적된 만큼 대안육 사업 수익성 개선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L&B 수장으로는 마기환 나라셀라 영업마케팅총괄 전무이사를 영입했다. 마 신임대표는 2000년 이마트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등을 거쳤으며 2013년 신세계L&B에 합류해 영업팀장과 영업담당 상무를 지냈다. 지난해 나라셀라가 와인 수입사 최초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면서 나라셀라에 잠시 몸담았다가 다시 '친정'에 복귀하는 것이다.

마기환 신임대표는 신세계L&B 내부 사정에 밝은 인물로 이마트PB브랜드 와인 '도스코파스'를 기획한 인물이기도 하다.

신세계L&B는 올해 제주소주를 정리하고 수익성이 좋지 않은 '와인앤모어'의 매장 4곳을 폐점했다. 비효율 점포와 사업부문을 정리하고 주력 사업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L&B는 당장 실적 개선이 과제다. 신세계L&B는 매출이 2022년 2064억원에서 지난해 1806억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은 116억원에서 7억원으로 급감했다. 최근 몇년간 주류 트렌드가 와인에서 위스키, 하이볼로 이동하면서 와인 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신세계L&B가 소주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와인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는만큼 마 신임대표의 풍부한 유통 경험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이 식품 사업에서 제주소주와 스무디킹 등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철수하고, 이번 인사에서 잔뼈가 굵은 '신세계멘'들을 앞세운 것을 보면 그룹의 변화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며 "사업 효율화와 수익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BBQ 빌리지 청계광장점 '치킨·위스키 페어링'

BBQ가 치킨과 위스키의 새로운 조합을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전개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오는 14일까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BBQ 빌리지 청계광장점'에서 치킨과 와일드 터키 위스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BBQ는 이번 행사를 위해 버번 위스키인 '와일드 터키' '러셀 리저브'를 비롯한 아페롤 스피릿과 페어링한 BBQ 치킨 세트 메뉴와 BBQ 스파클링 음료 '레몬보이'와 위스키를 조합한 하이볼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배스킨라빈스 '치토스 밀크셰이크' 출시

SPC 배스킨라빈스는 지난달 31일 실험과 창조의 공간 '워크샵 바이 배스킨라빈스(이하 워크샵)' 매장에서 11월 이달의 맛 '치토스 밀크셰이크 아이스크림' 언탭(Un-Tub)쇼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언탭쇼란 매달 새롭게 출시되는 이달의 맛 아이스크림을 최초로 공개하고 맛볼 수 있는 고객 행사다.

배스킨라빈스는 사전 응모 및 초청 인원을 포함한 100여 명의 현장 방문객들에게 썬시코의 대표 스낵 '치토스'와 협업 개발한 11월 이달의 맛 '치토스 밀크셰이크 아이스크림'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브랜드 스토리텔러 '닥터'가 직접 제품의 특징점을 소개했다.

/신원선 기자

이마트24 "50억초밥왕 '감태계란마끼' 맛보세요"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협업

오는 15일까지 20% 할인, 3900원
김도윤 셰프, 한식 먹거리 3종 선택

이마트24가 흑백요리사 셰프들과 협업한 상품을 내놓으며 '흑백요리사' 열풍에 합류한다.

이마트24는 이달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인 '50억초밥왕' 이경재 셰프와 협업한 '감태계란마끼'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감태계란마끼는 달콤한 계란구이와



'감태계란마끼'

오복채(무장아찌), 오이채를 토핑한 마끼에 감태를 한 번 더 감싸 향긋한 맛을 더했다. '마끼(まき)'는 '김으로 돌돌 말은'이라는 뜻으로, 일본식 김밥을 일컫는다.

해당 상품은 '오늘의 초밥'을 운영하는 이경재 셰프가

상품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상품을 직접 맛보며 자문 역할을 담당했다. 이마트24는 많은 고객들이 감태계란마끼를 즐길 수 있도록 오는 15일까지 20% 할인된 가격인 3900원에 제공한다.

이마트24는 흑백요리사의 또 다른 출연자인 김도윤 셰프와 협업한 상품도 이달중 선보인다. 김도윤 셰프는 미쉐린 1스타 한식다이닝 '윤서울'의 셰프로, 한식을 접목한 ▲오색나물비빔밥 ▲참치마요취나물김밥 ▲참새끼나물김밥 등 먹거리 3종을 선보인다.

상품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회단체에 기부될 예정이다.

해당 콜라보 상품 구입 시, 추첨을 통해 김도윤 셰프의 면요리 전문점인 '면서울'의 3만 원 식사권(10매), 애플 에어팟 맥스(AirPods Max), 이마트 24 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마트24는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이복요리 전문점 '리복방'의 최지형 셰프와도 협업해 12월 중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쿠팡, 인기 뷰티브랜드 최대 70% 할인

오늘부터 24일까지 '메가뷰티쇼'

쿠팡이 4일부터 24일까지 인기 뷰티 브랜드 제품을 특별한 혜택과 함께 선보이는 '메가뷰티쇼'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메가뷰티쇼는 쿠팡이 1년에 세 번 진행하는 대규모 뷰티 축제다. 국내외 유명 뷰티 브랜드들의 인기 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에 만날 수 있는 행사다.

닥터지, 아이오펜, 마녀공장, 쉐퓨전씨, 메디필, 숨37도, 아벤스, 브이티(VT), 투쿨포스쿨 등 국내외 대표 뷰티 브랜드 9개사가 참여해 최대 70% 할인

된 가격에 제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에는 각 브랜드의 스테디 셀러와 신제품을 모았다.

대표적으로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시카 수딩 크림 듀오 기획세트 ▲셀퓨전씨 레이저 유보이 썬스크린 ▲아벤스 오페르말 미스트 ▲투쿨포스쿨 바이로맹 웨이딩 엑스퍼트 ▲브이티 리들샷 700 등이 있다.

쿠팡은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을 마련했다. '혜택은 반값! 예쁨은 두배 1+1 득템찬스'에서는 크림, 쿠션, 앰플, 아이라이너 등 인기 제품을 1+1으로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최병오, 中 패션 시장 공략 광폭 행보

〈패션그룹형지 회장〉

지난달 28일 中 항주 방문 시장조사

패션그룹형지는 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패션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패션그룹형지에 따르면 최병오 회장은 지난 10월 28일 중국 항주에 방문해 시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29일에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장을 방문, 제품 공급처 관련 상담을 진행한 뒤 이상조 이우한국인상회 회장을 만나 패션그룹형지와 이우한국인상회 간의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맺었다.

이우한국인상회는 중국 절강성 이우시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민과 기업인

들로 구성된 단체로, 교민들의 권익 보호와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우 국제소상공인시장에 패션 잡화가 강세인 지역인 만큼, 패션 잡화 및 상품은 소싱을 위한 최적의 시장으로 보고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는 게 패션그룹형지 측 설명이다.

향후에도 중국 방문을 통해 현지 경영을 이어갈 예정이라는 게 패션그룹형지 측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광둥성 둥관시에서 중국복장협회 주최로 열리는 '2024 글로벌 의류 콘퍼런스(GAC)'에 참관할 계획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3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현대백화점 목동점 지하 1층 '더 컬렉션 아트 페어' 전시장에서 고객들이 작품을 관람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목동점 '더 컬렉션 아트페어'

현대백화점은 오는 7일까지 서울 양천구 목동점 지하 1층에서 미술 경매 회사 아르페케이가 주관하는 '더 컬렉션 아트 페어'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창열, 이우환 등 세계적인 블루칩 아티스트를 비롯해 방수현, 이수진 등 경기문화재단이 선정한 18인의 영아티스트 등 40여명의 작가의 작품 총 1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최빛나 기자